보내심을 받은 자 (요한복음 9:1-12)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다. 그 약속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 약속이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한다. 그것을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기도이고 예배이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기도와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인데, 끝까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그냥 예배를 드리지 말고 언약을 잡고 예배를 드리기 바란다. 공통적인 근본적인 언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저주에서 해방이다. 문제에서 해방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문제에서 해방이다. 오히려 정복하고 다른 사람 살리게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이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로 믿고 그것을 언약으로 잡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런 예배를 지속하면 역사 일어난다. 만일 기도가 이 기도이면 역사 일어난다. 틀림없다. 간단한데 안해서 문제라는 것을 마음에 담기 바란다. 그러나 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역사 일어난다.

오늘 제목이 보내심을 받은 자 이다. 왜 보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한대로 저주에서 해방을 위하여, 인간이 저주에서, 문제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다. 언약되기 바란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증인되어야 할 내용이다. 다시 한번 언약되기 바란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안 통해서 그렇다. 예전에 같이 있던 교회 성도들 만나서 대화하면 어떤가? 말 안통한다.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말이 안 통한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237을 모르면 결국 안 통한다. 하나님의 소원이 가슴에 소원을 잡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라야 통하는데 그게 아닌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끼리만 말이 안 통하는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도 통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근본적으로 말이 안 통한다. 237이 아니면 결국 말이 안 통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에서 출발해서 237에까지 가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과도 통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학업, 사업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237까지 가야 한다. 그래야 응답이 지속된다. 그리고 결국 정복하게 된다. 아주 틀림이 없다. 시공간 초월의 인생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다. 237, 그리스도. 그런데 이것을 안하고 자꾸만 응답만 주라고 하면 하나님이 답답해하신다. 이것을 하고 있으면 그냥 주실건데.. 우리가 회사에 다니며 할 일은 안하고 월급만 달라고 하면 억지가 된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도둑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둑이라고 안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다. 감사하게도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졌으니 악한 짓을 해도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237 되어야 하고 세계 복음화 되어야 한다. 처음부터 잘 안된다. 생각이 잘 안바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늘 누리고 언약으로 잡는 것을 반복하면 내 생각이 바뀐걸 아는 사단이 박살난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히 237이지 이렇게 되어 버린다. 이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이것이 내 인생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이유가 237, 그리스도, 렘넌트 이렇게 되어야 한다. 렘넌트들,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생각해봐라.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는가. 그러면 답 나와야 한다. 237,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 그것이 들어오고 언약되는 날부터 모든게 싹 바뀐다. 일단 영적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나를 넘어가야 한다. 내 생각이 나에게 걸려 있으면 계속 싸움이 일어난다. 우리 보통 보면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 자기를 넘지 못해서 그렇다. 가정 넘어가야 한다. 가정 중시하는 사람 많이 있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뛰어 넘어야 한다. 아주 훌륭한 제자이고, 헌신한 제자인데, 교회를 못 넘어서면 결국은 안 통하게 된다. 교회 넘어가야 하고, 지역 넘어가야 하고 나라 넘어가야 하고 237 가야 한다. 우리는 남미도 그냥 남미가 아니고 끝까지이다. 그리고 진짜 가는 것이다. 이것이 정상이다.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과 렘넌트 7명을 보면 처음부터 237이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하고 큰 인생이 되기 바란다. 어르신들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크게 살아야 한다. 렘넌트들은 멀리 보고 크게 살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에 사는데 세계를 보고 살아야지 미국 안에서만 뺑뺑 돌것인가? 말이 안된다.

1.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려고,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키려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그 언약의 피가 우리를 모든 저주와 노예된 것에서 완전 해방시켜 주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그냥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언약이 된 사람에게 그대로 이뤄진다. 오늘 이 맹인이 절대 방법이 없는데, 날때부터 된 사람을 저주에서 건져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뭔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어라. 이렇게 나를 믿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 메시지이다. 맹인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즉시 물어봤다. 주님, 이 사람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것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의 죄냐, 부모의 죄냐? 예수님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복음의 답을 주셨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침을 뱉어서 흙을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다. 그래서 씻었더니 눈이 떠져버린 것이다. 멀쩡하게 왔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 9장의 내용이다. 이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침을 이겨서 흙을 눈에 바른 이유는, 이 사람을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보내기 위하여 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고, 이 사람을 그 못에 보내어 씻고 낫게 하기 위하여 보낸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침이니까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틀렸다. 물론 예수님의 침이 능력이 있을수 있고, 예수님이 쓴 흙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럴수도 있지만 그건 신비주의이다. 예수님의 목표는 딱 하나, 그 사람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거기서 나았다. 그리고 한 말씀이 내가 실로암이라는 것이다.

나아만 장군을 잘 안다. 요단강에서 목욕 7번 하고 나병이 나았다. 큰 나라의 대단한 장군인데, 엘리사가 문도 안 열고 가서 7번 씻으라고 말만 했다. 엘리사가 버릇없다고 이 장군에 화가 났다. 그 기록에 보면 우리 나라에는 이것보다 더 좋고 깨끗한 강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내가 여기서 해야 하냐 하며 가자고 하였다. 그래도 부하의 말을 듣고 가서 7번 씻었는데 깨끗이 나았다. 나중에는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의 흙을 담아갔다. 그런데 자기 나라 강이 아무리 깨끗하고 크고 좋아도 거기서 목욕해도 절대 낫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지정한 강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소용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의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자기 눈에 묻은 흙을 다른 곳에 가서 씻어도 안낫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뜻이 없기에 가서 백날 씻어도 안된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오직 예수이다. 오직 복음이고 오직 말씀이다. 그 오직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모든 문제 안에 다 있다는 것이다. 한가지도 하나님의 계획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잘아는 시편 139: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알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신다는 것이다. 그러면 말 다한 것이다. 마태복음 10:30절에 보면 우리의 머리카락가지 다 세신바 되었다고 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고 그런 신분이 아니다. 너희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말씀은 분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안되느냐는 것이다. 이유는 그리스도 안 누려서 그렇다. 왜 안누리는가? 사실은 잘 모른다. 믿는데, 사실은 잘 모른다. 맞다고 인정하신다면 오늘부터 하나님 나도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로 끝내야 한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는 일은 세상에는 없

다. 하나님의 계획 밖에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 단 한 개도 없다. 사단의 역사로 일어나는 그 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지 못한다. 사단이 자기 맘대로 그것을 계획하고 꾸밀수 있는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 아닌 일은 없다고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믿어야 하고 이것으로 도전해야 한다. 문제 오면 누구나 불안하다. 불안한 중에도 계속 고백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스도 언약으로 잡아야 하고 권세를 선포해야 하고 영적 전쟁 계속 해야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더더욱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는 신앙생활의 과거를 보면 그렇다고 인정할 것이다. 어려울 때 더 큰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안될때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많이 듣는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문제 분명히 있지만 그것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다. 언약으로 잡아라. 잊어버리지 말고 잡고 이것으로 도전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잡고 깊이 기도를 하는 것이 24시이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울지만 그 나머지는 우는게 우리의 신분이 아니다.

2. 증인

그 이후에 읽어보면 이 사람이 아주 멋진 증인이 되었다. 왜냐하면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못했는데, 그분이 하라는대로 했더니 눈이 떠졌다. 어떤 방법으로도 안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언약잡고 기도했더니 되어졌다. 그러면 언약의 증인 되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분명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 저것 섞은 증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끝이라는 분명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불러서 물어봤다. 너 어떻게 눈을 떴냐? 너는 누구냐? 그리고 너를 눈 뜨게 한 사람은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너는 그를 누구로 생각하냐고 했더니 나는 그를 선지자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신경쓰는 것은 이 일이 안식일날 일어난것이었다. 이 사람들의 안식일의 목표는 일을 안하는 것이다. 일을 안하는 것 자체가 목표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을 했고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 안식일날 일해도 된다는 사상이 퍼져나갈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이 부모를 불렀다. 이 사람이 니 아들이냐고 물었다. 그리고 날때부터 맹인인가를 물어봤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도 물어봤다. 부모는 다 맞다고 하고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그건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 되었다고 하면 출교가 된다. 그것은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것이다. 직업이고 뭐고 다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 사람을 다시 불렀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다시 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왜 또 묻냐고 했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그 사람의 제자 되기 원하냐고 하니 기분나빠 하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요한복음 9장 32-34절에 보면 분명한 고백을 하였다. 창세 이후로 나는 날때부터 맹인된자를 눈 뜨게 했다는 것을 들은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겠냐는 것이다. 설득력이 있고 논리가 맞다. 그러니 34절에 니가 온전히 죄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고 하였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바리새인들의 사상에는 죄에서 해방, 저주에서 해방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니가 분명히 저주, 죄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냐는 것이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했다. 간단하면서 100% 완전했다. 우리는 이런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겠는가? 오직 응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으면 이렇게 된다. 다른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받으면 이렇게 된다. 오직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다른건 안하고, 오직 이것만 해서 응답이 되면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증인이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 분명하게 말할수 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는 것이다. 왜냐면 오직 그리스도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다. 성경에는 수 많은 약속이 있다. 그게 다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든 성경의 기록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보통 기적이 일어났다고 난리가 난다. 귀한 것이고 응답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그는 내가 보낸 자야.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는 너희의 그리스도야. 누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칠수 있겠냐? 그러므로 그것을 한 자가 하나님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이다. 우리가 그냥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 받으면 분명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증인이 되기 쉽다. 나쁜건 아니다. 저는 한번씩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아직도 상당히 많은 퍼센트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는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 말하는 것이다. 분명 그리스도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면 그것은 종교이다. 우리 옛날에 다 그랬다. 예수는 처음 믿을 때 쓰고 그 다음 옆에 놔두고 기도 헌신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 문제가 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가?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하고 싶은게 무엇인가? 기도이다. 기도로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가 그 기도의 50%나 차지하는가? 만일 그렇게 안한다면 종교기도이다. 옛날하고 차이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는 옆에 두고 내 기도를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그건 종교이다. 헌신으로 응답받으려고 한다면 종교이다. 아직도 종교,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기회있을때마다 이야기 하는 것이다.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혹 있을 것이다. 그냥 그리스도 알고 기도하면 되지, 그걸 비교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너무나 교묘하다. 머리가 아주 좋다. 그래서 기도를 가지고 교묘하게 속여버리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제가 받은 은혜가 그렇다. 자동으로 이런 소리가 나온다. 오늘 이 사람은 기도로 나은 것이 아니다. 38년된 병자도 자기 기도로 나은 것이 아니다. 38년된 병자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물 움직이면 내가 빨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였다. 하나님 물이 움직일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팔 다리가 굳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오셔서 한마디로 끝내버렸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하지 기도를 전하기 원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하지 기도를 섞은 복음을 전하기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기도해라. 그정도가 아니라 24시 해라. 이런 증인이 되어야 한다. 섞으면 안된다.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것도 섞이면 안된다. 분명하고 선명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증인될 때만 그런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릴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를 독립적으로 고백하고 그 언약을 잡고 기도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스도든 기도든 하나만 응답되면 되지, 그건 종교다. 하나님은 이것 싫어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이면 인생도 그렇게 반반이 되어버린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와야 한다. 물론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 따로, 그 다음 기도 하는 시간 따로, 이렇게 율법적으로 해야 할 필요없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도 기도이고 내 기도하는 것도 기도이다. 단지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으로 구분해서 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람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분명한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이 주신 분명한 응답이 필요하다. 그럴러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왔구나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리스도 계속 되어진다.

10차 캠프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증인되도록 문을 많이 열어주시기 바란다.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고 언약으로 잡기 바란다.